

나쓰메 소세키 우치쓰보이 옛 저택

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인 나쓰메 소세키(1867-1916)는 1896년 4월에 제 5 고등중학교(지금의 구마모토 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)의 영어 교사로 구마모토에 부임했습니다. 4년 후인 1900년에 문부성의 명으로 연구를 위해 런던에 파견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마모토에 머물렀습니다.

우치쓰보이 옛 저택은 소세키가 구마모토에 체류할 당시 거주했던 6채의 저택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저택입니다. 우치쓰보이 옛 저택은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소세키가 구마모토에서 거주했던 저택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, 유일하게 당시의 상태 그대로 같은 장소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. 이외에도 2채가 남아 있지만 나머지 저택들은 당시와는 매우 달라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소세키의 첫아이인 딸 후데코가 1899년에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. 우치쓰보이 옛 저택은 총 8개의 방과 아늑한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마당 한 켠에는 갓난아이였던 후데코의 목욕물로 사용했다는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. 당시 월세는 10엔이었는데,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만엔에 해당합니다.

이곳에서 거주하던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소세키는 소설을 집필하지는 않았으며 하이쿠(17글자로 짓는 일본의 정형시 중 하나)를 취미로 하는 영어 교사에 불과했습니다. 소세키는 일생 동안 2,000여 구의 하이쿠를 지었는데 그중 900구는 구마모토에 거주할 때 지었던 것입니다. 도쿄에서 함께 학업에 정진했던 동창이자 훗날 유명한 하이쿠 시인으로 자리매김한 마사오카 시키(1867-1902)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.

구마모토에서는 소설을 집필하지 않았던 소세키였지만, 1906년에 발표된 소설 『풀베개』와 『이백십일』 모두 구마모토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시 나중을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.